시 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319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7.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하나	문인환	김형기	07/14 김광식

제12차('14. 7월) 세담 독서토론 결과 보고

2014. 7

강남수도사업소

제12차('14.7) 「세담」 독서토론 결과 보고

책을 통한 지식기반의 시정운영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독서·소통문화 정착 및 토론과 실행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사업소 독서 모임 「세담」 제12차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토론 실시 개요

□ 일 시 : 2014. 7. 4(금) 17:00~18: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1 (회원 및 일반직원 9 시민 2)

□ 토론대상 도서명 :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저자: 사이토 다카시)

□ 토론내용

○ 도서 내용 공유 및 개인 독후 소감

○ 주제 선정 및 토론

- 개인별 독후소감 공유
- 세계사를 움직인 다섯 가지 힘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

○ 제13차('14.8월) 토론대상 도서 선정

- 「쌍둥이별: 마이시스터즈 키퍼」(저자 : 조디피콜트, 역자 : 곽영미, 출판사 : 이레)

○ 제13차 토론 모임일시 결정 : 2014.8.8(금), 17:00~18:00, 2층 회의실

Ⅱ 토 론 결 과

▢ 토론 내용

토론 주제		공유 내용
독후 소감 및 토론 내용	토론자1	책을 읽고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을 '-망'이라고 분류하면 욕망,희망,야망,기망,교망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한다. 다섯가지는 앞으로 전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내려놓음이나 욕심버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론자2	역사를 바꾸는 동력으로 목적을 두고 계획대로 이르는 것인가? vs 우연의 결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전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폐해가 많다고 생각된다. 현실에서 공약사항으로 즉흥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목표들이 많은데 목표나 목적을 선정할 때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토론자3	다섯가지 다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로 선진국이 주도하지만 폐해도 부수적으로 막대하다는 것을 느꼈다.
	토론자4	엘리트에 의해서 다섯가지는 비롯되었고, 현재 엘리트를 뒷받침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생각된다.
	토론자5	욕망의 상징이었던 연금술이 과학을 발달시킨 것을 보고, 우연의 결과로 세계사를 바꾼 것이 책의 내용 외에 무엇이 있을까하고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

Ⅲ 토론 장면 사진

도서 내용 공유 및 개인 독후 소감

주제 선정 및 토론

Ⅳ 행 정 사 항

- 2014.7.15.(화)까지 13차 토론도서 구입 및 회원·참여시민에게 제공
- 2014.7.18.(금)까지 12차 토론도서 사업소문고, 남·여직원휴게실, 각 과 비치
- 12차 독서토론 결과 시스템 등재 후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독서문화 확산

※ 독서모임 활동 평가항목 : 회원수, 참여율, 개최실적 및 온라인 자료공유 실적

붙임 : 독서토론 참여자 명단 1부. 끝.